

부산의 그 파도, 그리고 '靑色詩集'

세번째 시집 「패각의 침실」과 崔暎海 사장

趙炳華

시인 · 인하대 명예교수

지금까지 나는 창작시집을 서른두권 출판했다. 첫 시집 「버리고 싶은 遺産」이 1949년 7월 1일 서울 珊瑚莊에서 출판되었고, 제32 시집 「혼자 가는 길」이 1988년 10월 5일 우일문화사에서 출판되었다.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은 김기림 시인의 소개로 장만영 시인이 경영하던 산호장에서 출판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나는 많은 출판사 사장들을 알게 되었다. 장만영 시인이 출판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장만영 시인 덕에 나는 출판계 사람들하고도 쉽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 또 이 방면의 정보나 지식같은 것도 자연히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활자의 호수나 종이의 종류, 잉크의 질, 교정과 조판, 또 판을 짜는 데 쓰이던 출판용어 등 하나의 책이 나올 때까지의 여러 과정들은 물론, 그것이 책으로 되어 나와 서점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되는 과정까지를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소매상이나 도매상의 구조와 분포, 출판계의 수급 방식까지도 다방이나 술집에서 출판인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통해 자연 알게 되었다. 하기는 거의 매일같이 그들 출판사 사장들과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대부분은 장만영 시인과 正音社 崔暎海 사장의 인사소개로 마련되곤 했었고, 그렇게

얻은 지식이나 정보, 출판계 사정 등은 내가 글을 써 가는 데 실로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다.

이 중에서도 내게 크게 고마웠던 분은 최영해 사장이었다. 최영해 사장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한글학자 외설 崔鉉培 선생의 장남으로, 아버님의 학문세계를 출판하기 위해 일제시대부터 창립한 정음사의 사장이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문과 출신이며, 문과 재학시절엔 「三四文學」의 문학동인이기도 했다. 시를 썼었다. 그러나, 아버님 때문에 시를 버리고 출판사업을 시작했다는 효자 중의 효자이기도 했었다.

요즘은 생김 지 얼마 안되는 출판사들도 활동이 대단하고, 정음사나 을유문화사 같이 해방 직후 명성을 날리던 큰 출판사들은 상대적으로 빛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참으로 대단한 출판사였다.

특히 정음사는 최영해 사장 본인이 시를 썼기 때문에 실로 많은 시인의 많은 시집들을 출판해 주었다. 시인의 기질로 가난한 시인들을 위해 많은 편리를 보아 주었고, 또한 술인심이 특히 후했다. 아마 명동 거리에서 최영해 사장의 술 대접을 안받은 문인들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그렇게 거의 매일밤을 시인들, 소설가들, 예술가들과의 / 술자리에 동석해서 그들을 즐겁게 해 주곤 했다. 그러나 무언가 싫은 사람하고는 좌석을

같이 하지 않았었다.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한 성격의 호인이었다.

문학이나 예술서적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경제, 법학, 과학, 민속 전반에 걸쳐 좋은 저자들을 흡수해서 대대적으로 출판을 해 나갔었다. 그 위력이 실로 대단해 누구나 정음사에서 책을 내고 싶어 했었다. 당시

**부산 피난시절의 쓸쓸한 생존 속에서
나에겐 詩만이 인생의 의지가
된 것처럼 시가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그것을 출판해 줄 만한
여유있는 출판사는 없었는데,
그때 최영해사장이 선뜻 출판을
말아 주었다.**

대학선생감이 그만큼 부족했던 탓도 있겠지만, 정음사에서 출판한 책 한권으로 대학에 출강하고 교수 자격을 따내고 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무언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대로, 1950년 6월 북한 인민군이 순식간에 수도 서울을 점령해버렸다. 이 전쟁을 겪으며 대부분의 서울사람들은 부산으로 부산으로 서울을 떠났고, 나 역시 부산에서 한동안 피난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쓸쓸한 생존 속에서 나에겐 시만이 무슨

인생의 의지가 된 듯 시가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그것을 출판해 줄 만한 여유있는 출판사가 없었다.

최영해 사장이 그때 그것을 출판해 주었다. 그것이 1952년 8월 18일에 나온 나의 제3시집 「貝殼의 寢室」이다. 이 시집의 題字를 최영해 사장이 썼다. 돈들이 없어서 장정도 내가 직접 하고, 조판도 당시 광복동에 임시로 내려와 있던 경향신문사 공무국 식자부에서 내가 직접했다. 8호 활자, 부스리진 활자들이 모여서 본문이 조판되었다. 잉크는 부산의 바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청색으로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로 알아보기 힘든 활자의 시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이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빨간 태양을 가슴에 안고
사나이들의 잠이 길어진 아침에
샴터로 나오는 여인네들은 젖이 불었다.
— 「샴터」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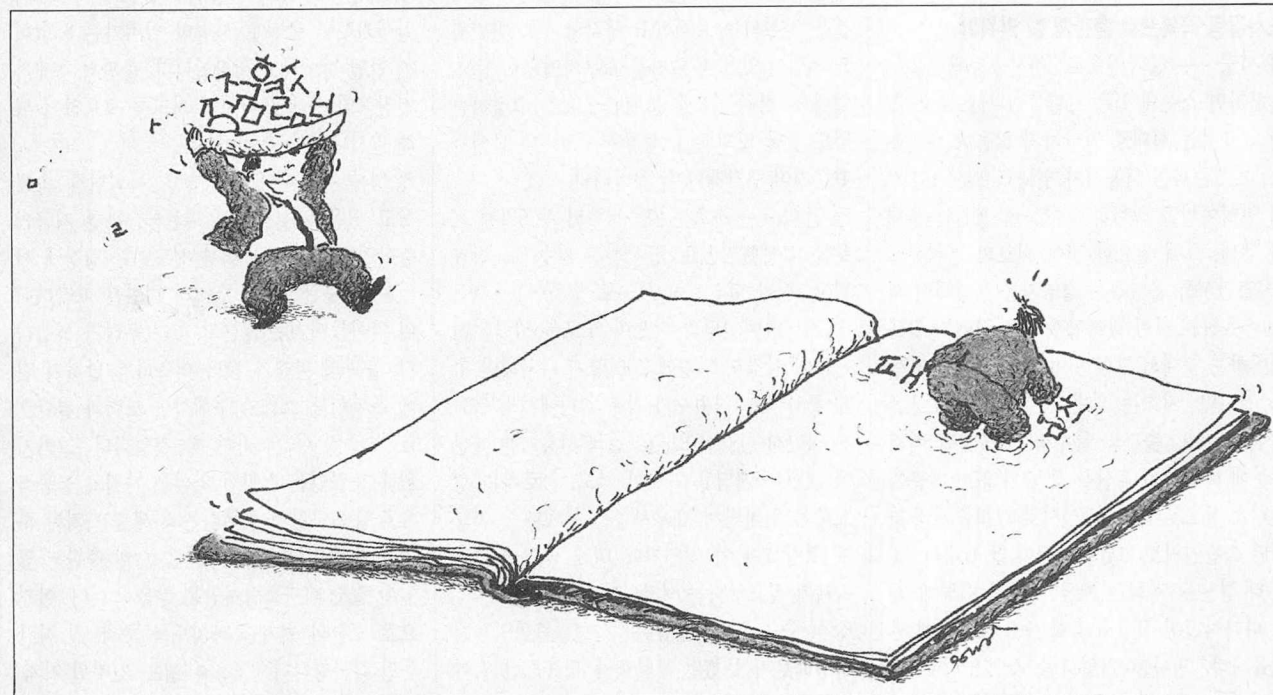
하얀 貝殼 속에서 수업을 한다.
산머투처럼 익어 가던
생도들의 까만 눈알들이
전쟁에 혼 떼어
파란 해협의 魚卵처럼 맑다.
— 「이해교실」 일부

일체의 수축이 싫어
그럴 때마다 가슴을 뚫고 드는
우울을 견디지 못해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 「주점」 일부

이런 시구들이 「패각의 침실」 속에 누워 있다. 또 그 서시에는

식민지의 등대처럼
나는
내 어둠을 비친다.

라고 하여 그때 요새말로 참여적인 시를 썼었던 것 같은데 시대가 가고 보니 부끄럽기만 하다. 이런 고비들을 넘기면서 오늘날까지 나는 그 때, 그 역사, 그 파도를 외롭게 넘기며 많은 시를 써 오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 이혜리

책의 가치에 대한 '역설적' 회의

책의 '제국주의 시대'는 몰락해 가고 있다

李相日

성균관대 교수 · 독문학

지식의 전달을 책에 의존하던 '위대한 시대'는 이제 천천히 막을 내리려 한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帝國의 몰락과 같다. 민주주의 시대에 제국주의는 시대착오적이다. 아니면 제6공화국시대에 5공의 권위주의를 그리워하는 퇴영적인 발상이 꼬리를 감추지 못하는 현상에 비유될 수 있을까.

지식의 전달이나 정보의 수단으로서 책이 감당했던 그 위대한 역할의 시대에는 도서관 구실을 하는 책 보관소가 그대로 당대의 가치의 보고였을 것이다.

도서관으로 가장 오래 되었다는 기원전 7세기의 앗시리아 '아슈르바니탈'에서 발굴된 점토판 책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파피루스 책, 그리고 중국 漢代의 기선각 竹簡 책 등 책의 매체는 반드시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가진 '중이+활자' 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는 매체가 책이라는 형식으로 고정되면서 책이 아니면 도무지 지식도 얻을 수 없고 정보채널에서도 소외된다는 식으로, 일종의 강박관념이 박힌 것은 책 전문가들의 유통과정 독점을 위한 술책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책의 가치는 불변이라는 '흑백논리'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들이나 전통사회의 문맹자들도 그들의 사회화과정을 반드시 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듣고 보는 것의 반복효과가 읽음으로써 얻는 지식과 정보보다 훨씬 체절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책의 가치를 불변의 그것으로 믿고 있는 고정관념이 어찌면 고칠 수 없는 편집증 증세일 수도 있으며, 그 편집증에서 벗어나는 방도로서 책의 가치를 한변쯤 버림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인쇄매체인 책의 문화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우리 세대는 어찌면 책의 흑백논리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책의 흑백논리란 굳어버린 논리화이며 체계화이다. 그러니까 논증이 되지 않고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비논리적이라는 까닭을 붙여, 그런 지식이나 정보는 가치없는

것으로 교육받는 우리, 적어도 나는 논리체계를 통해서만 진리에 이르려는 편집증 증세를 앓는다. 그러니까 당대의 정치적·종교적·예술적 대가들의 말씀도 앞뒤의 조리, 곧 논리가 닿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조리가 닿고 논리가 확실하다고 해서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건너뛰어서 비약하는 논리 가운데 구원의 진리가 있을 수가 있고, 조리가 닿지 않는 문답 속에도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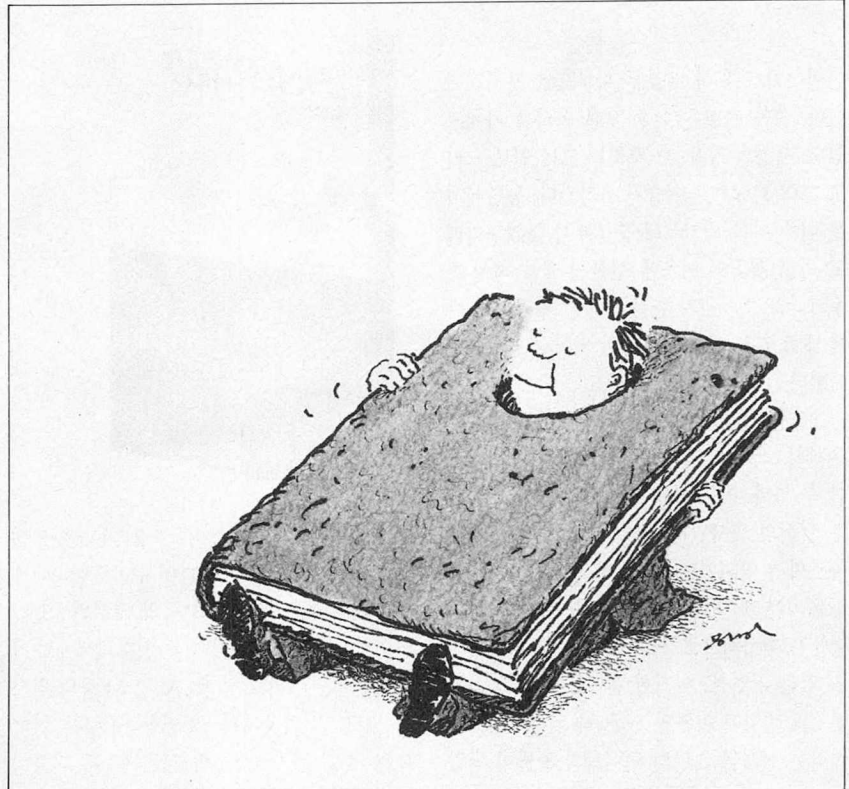
따라서 인쇄매체에 의하여 훈련된 논리체계의 고정관념만으로는 영상매체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직관력이나 영감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숫자라면 십진법으로밖에

인쇄매체에 의해 훈련된 논리체계의 고정관념만으로는 영상매체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의 직관력이나 영감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우리는 책의 제국주의 시대가 몰락해 가는 장엄한 낙조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5세대에 이르는 컴퓨터로 말하면 이진법적 발상이 아니면 작동조차 될 수 없다. 십진법이 고전적이라는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갖다붙인 명분이고, 이진법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힌 세대들은 어찌면 십진법을 고루한 보수적 계산법이라고 치지도 외할는지 모른다.

책을 외면하는 영상매체 세대

지식과 정보가 꼭 책으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앗시리아에서는 점토에 새기는 글자같은 것이 책 구실을 했고 파피루스에 그려진 그림도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으며 대나무에 새긴 글씨가 역사를 서술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책이라는 이름의 흑백 행간에 차곡차곡 쌓여진 인쇄매체의 폐쇄공간에서 어두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으며 자라난 구텐베르크의



일러스트레이션 / 이혜리

후손들도 반드시 논리체계의 세대라고 자랑할 것이 못된다. 차라리 그런 책의 가치를 과감하게 저버리고 영상매체의 개방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도서관이 제대로 된 도서관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시설의 주요임무가 열람실, 그것도 공부방을 옮겨다 놓은 사설 안방 노릇을 하는데 급급한 처지이고 보면,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의 창고지기 역할을 모면시키는 방법이 바로 책의 가치에 대한 역설적인 평가절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영상매체에 익숙해진 제5세대 컴퓨터세대의 우리 후대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책을 통하지 않고서도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책의 흑백논리에 얽매일 까닭이 없고 도서관이 굳이 남아빠진 책이라는 '중이+활자'의 보관소로 전략할 까닭도 없다.

책의 가치가 과대 포장되는 것은 상품가치로서의 인쇄문화가 유통과정에서 스스로를 미화시킨 결과인 것이다. 책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이 들어서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전제주의자의 언론관은 차라리 영상매체라는 새로운 전달수단을 통해 열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여 '중이+활자'의 책 대신에 점토판과 파피루스 책과 죽간책처럼 이제 공중에 떠도는 이미지의 책도 나오게 되었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영상이 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필름이 되고 비디오 테이프가 되고 음반이 되고 광디스크가 되면, 분명히 논리체계의 객관적 과학방식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직관·비약의 주관적 과학방식이라는 새로운 지식·정보 수용수단으로 변화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행히 나는 책의 가치가 유지되는 행복한 시대를 살다 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책의 제국주의 시대가 몰락해 가는 장엄한 낙조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만화의 시대를 살고, 디자인, 비디오, 광디스크의 시대를 살면서 책이 주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게 될 것이다. 책의 가치에 대한 역설적인 회의는 책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기성세대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불신에서 온다.